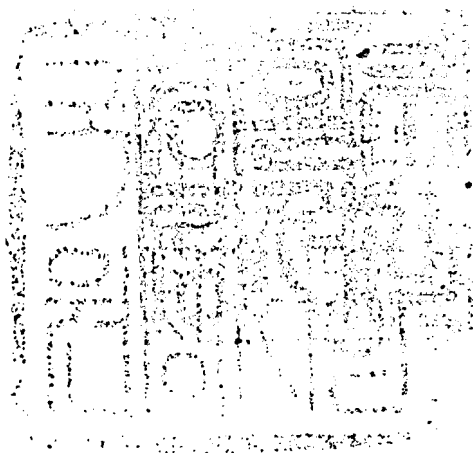


北韓調查研究—軍事

軍事停戰委를 통해 본 北傀의  
對南戰略具現實態分析

1978.



作成者：研究官 尹 璟 泰

調 查 研 究 室

(政治軍事研究室)

## 報 告 書 要 約

- 이 研究課題는 韓國休戰協定の 主要機能의 하나인 軍停委의 活動狀況과 70年代를 中心으로 한 北傀의 對南挑發과 軍停委에서의 活動實態를 分析評價하고 駐韓美軍撤収와 關聯하여 予想되는 北傀의 軍停委에서의 政治攻勢를 把握함으로써 우리의 對備策마련의 基本 方向을 提示코자함에 있음.
- 1953. 7. 27 韓國休戰協定이 締結된 이래 韓半島에는 休戰體制가 成立되었으며 同 協定은 韓半島에서의 戰爭再發防止와 緊張緩和를 위해 다음과 같은 主要條項을 두고 있음.
  - 軍事分界線과 非武裝地帶의 設置
  - 韓半島 境外로부터의 軍事人員의 增員과 軍裝備의 搬入等 軍備 增強의 禁止
  - 軍事停戰委員會의 設置運營
  - 中立國 監視委員團의 設置運營等
- 그러나 北傀의 休戰協定の 違反과 戰爭準備로 말미암아 軍備 增強의 禁止와 中立國監視委員會의 機能은 事實上 麻痺狀態에 있으며 休戰線과 非武裝地帶의 維持 및 軍事停戰委員會의 機能만이 持續되고 있으나 北傀는 이 軍停委의 機能마저 그들의 對南戰略의 具現手段으로 利用하고 있음.

- 軍停委의 主要機能은 韓半島의 平和維持를 위한 停協違反事件의 協議處理, 軍事紛爭의 解決等에 있으나 北傀는 軍事問題와는 關係없는 政治問題의 제기 등 對南政治攻勢의 선전 장으로 利用해 왔음.
- 1977. 7 現在 總 385 次의 本會談中 유엔측 要請은 103 回 (27%) 인데 비해 共產側의 要請은 284 回 (73%) 임.
- 1953-1976 까지 유엔側이 抗議한 共產側協定違反은 38,764 件에 불과하나, 共產側이 抗議한 유엔側協定違反은 180,637 件임. (世界與論 誤導畫策)
- 유엔側은 "非武裝地帶의 平和的利用" 등 實質的提議를 해왔으나 北傀는 허담의 소위 "8 個項 統一方案", "對美平和協定 締結提議", "駐韓美軍의 撤収" 등 政治的問題를提起
- 特히 7.4 共同聲明以後에는 政治宣傳을 "駐韓美軍의 撤収" 에 두고 美國과의 直接 接觸 및 協商을 畫策하고 있는바, 앞으로 軍停委에서의 北傀의 政治宣傳攻勢는 다음과 같이 예상됨.
  - 美 海, 空軍을 포함한 駐韓美軍의 完全撤収
  - U N C의 即刻解體
  - 韓國內 核武器 撤去
  - 美國의 韓國軍現代化 繼續非難
  - 休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대체하기 위한 對美單獨平和協商의 受諾促求等

- 따라서, 我側은 다음과 같은 對備策을 마련해야 할 것임.
- 南北韓 相互不可侵協定이 締結될 때까지 유엔側 軍停委의 존속 강구책
  - 北傀를 南北對話의 広場에 誘導할 수 있는 적극적 외교활동의 展開
  - 南北對話 재개시 軍停委의 機能을 南北調節委의 軍事分科委로 漸次 인수할 수 있는 사전 대책
  - 優勢한 立場에서 對北傀協商을 進行할 수 있는 經濟力과 國防力의 強化

# 目 次

1. 研究目的	3
2. 休戰協定과 軍事停戰委員會	4
가. 休戰體制的 成立	4
나. 軍事停戰委員會	9
3. 軍停委 會談과 北傀의 態度	13
가. 北傀의 基本態度	13
나. 本會談 開催 狀況과 쌍방의 停協 違反事件 主張	14
다. 軍停委 會談의 主要争点과 北傀의 主張	16
4. 北傀의 對南挑發과 停戰委 會談	17
가. 1970 年度	17
나. 1971 年度	20
다. 1972 年度	25
라. 1973 年度	29
마. 1974 年度	33
바. 1975 年度	38
사. 1976 年度	41
아. 1977 年度	44
5. 結論 및 對策	46
가. 軍停委員會와 北傀의 對南策動	46
나. 軍停委를  통한 北傀의 對南 宣傳攻勢	48
다. 予想되는 北傀의 態度와 對備策	51

# 1. 研究 目 的

- 本 研究課題는 軍事停戰委員會의 活動狀況과 軍事停戰委員會를 通한 北傀의 對南戰略 具現實態를 把握하고자 함에 있음.
  - 休戰協定과 軍事停戰委員會의 役割
  - 軍事 停戰委員會와 北傀의 態度
  - 軍事停戰委員會에서의 主要 論争点
  - 軍事停戰委員會에서 北傀가 提起한 主要 問題点과 對南政治 宣傳 活動
  
- 特히 70年代의 軍事停戰委員會의 本會談活動狀況을 具體的으로 分析 評價하고 앞으로의 展開 樣相을 檢討하고자 함에 있음.
  - 駐韓美軍撤收와 關聯된 北傀의 軍停委에서의 活動과 態度
  - 軍停委 本會談에서의 北傀의 意圖와 底意
  - 休戰協定の 効力維持를 위한 유엔군측의 對應 態度
  - 앞으로 提起될 問題点

## 2. 休戰協定과 軍事停戰委員會

### 가. 休戰体制의 成立

#### 1) 休戰協定の 締結

##### ○ 韓國勦亂 勃發

- 1950年 6月 25日 北傀의 全面 南侵으로 6月 28日 서울 占領, 8~9月에는 낙동강線까지 到達
- 同年 9月 15日 “유엔”軍의 仁川上陸作戰으로 戰勢 逆轉, 戰線은 韓滿 國境까지 擴大
- 同年 10月 25日 中共軍의 大大的 介入으로 戰線은 38線을 基點으로 一陣 一退

##### ○ 休戰協商提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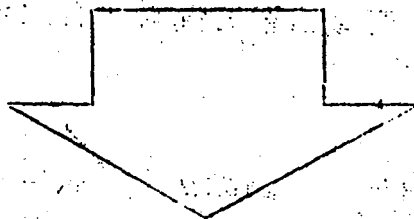
- 1951年初부터 美國의 저명한 外交官인 “조지 F. 케논”과 蘇聯의 “유엔”代表 “말리크”와 數次의 會談
- 同年 6月 23日 “말리크”는 38線으로부터 兵力의 相互 撤收를 規定하는 “停戰을 交戰國間에 協議하는 것이 第1段階”라는 提案
- 中共은 “모든 外國軍隊가 韓國으로부터 撤收하여 韓國問題는 韓國人 스스로가 解決할 수 있어야 한다”는 條件으로 蘇聯의 提案을 支持 (1951.6.25)

(中共人民日報)

- 1951年 6月 30日 駐韓 “유엔” 軍司令官 “릿지웨이” 將軍은 “政治的 問題”를 除外한 “軍事問題”만의 休戰 協商을 원산항의 “덴마크” 病院船 “쥬티랜티아” 호 선상에서 7月 10 ~ 15日 사이에 始作할 것을 提議
- 이에 對해 共產側은 會談場所를 開城으로 할 것을 回信

○ 休戰 協商과 休戰 協定の 締結

- 1951年 7月 8日 豫備 會談 開催
- 1951年 10月 15日 開城地域의 中立化問題로 會談場所를 板門店으로 移轉
- 休戰 會談이 開催된지 2年 17日만인 1954年 7月 27日 韓國 休戰 協定 調印
  - \* 유엔측 : “유엔” 軍司令官
  - \* 共產側 : 北傀 人民軍 最高司令官  
中共 人民支援軍司令官



韓半島 休戰 体制의 成立



## 2) 休戰協定の 性格과 南北韓關係

- 순전히 軍事的 性質에 속함.
  - 韓半島에서의 敵對行爲와 一切의 武力行爲의 完全한 停止의 保障을 目的으로 하며 순전히 軍事的 性質에 속함 (停戰前文)
  - 韓半島에서의 一切의 地上軍事力, 海上軍事力, 空中軍事力에 適用됨 (停戰 2 조 14, 15, 16 항)
- 政治的 重要性和 効力の 계속 維持
  - 韓國問題의 平和的 解決등의 問題들을 協議할 것을 建議 (정협 4 조 60 항)
  - 雙方의 政治的 水準에서의 平和的 解決을 위한 適當한 協定에 의해 명확히 交替될 때까지 계속 効力を 가짐 (정협 4 조 62 항)



- 國際法上 南北韓關係는 戰時 狀態임.
  - 休戰이란 交戰当事者간의 合意에 의한 敵對行爲의 停止임.
  - 休戰協定自体가 國際法上 戰爭을 終了시키는 것이 아님.
  - 休戰에 이어 平和狀態의 回復을 위한 平和條約 또는 強化條約이 締結되어야 함.  
(제네바 政治會談 成果없이 결렬)

### 3) 戰爭再發防止의 主要條項과 休戰協定의 機能

- 敵對行為의 再發을 招來할 수 있는 事件의 發生을 防止하기 위한 軍事分界線과 非武裝地帶의 設定과 雙方境界線에 대한 標識物의 設置  
(정협 1조 1항, 4항)
- 韓半島 境外로부터의 軍事人員의 增員 停止  
(정협 2조 13항 2목)
- 韓半島 境外로부터의 作戰 비행기, 장갑차량, 武器 및 彈藥의 搬入 등 軍備增強의 停止  
(정협 2조 13항 2목)
- 休戰協定의 實施를 감시하며 協定違反事件을 協議 處理하기 위한 軍事停戰委員會와 共同 監視 소조의 設置  
(정협 2조 19항, 20항, 23항, 24항)
- 休戰協定 2조 13항 2목, 13항 2목, 및 28항에 規定한 監督, 監視, 監察 및 調查의 結果를 軍事停戰委員會에 報告하는 中立國 監視委員會와 中立國 視察小組의 設置  
(정협 2조 36항, 37항, 40항, 41항)

## 暫定 廢棄된 機能

- 中立国 視察小組의 機能 (정협 2 조 40 항)
  - 北傀의 妨害와 적성 中立国의 非協調
  - 56.5.31. 70次 本會談에서 “유엔” 軍側에 의해
- 作戰飛行機, 장갑車輛, 武器 및 彈藥의 搬入 등 軍備增強 停止条項 (정협 2 조 13 항근목)
  - 中監委의 機能麻痺를 惡用한 北傀의 新武器 搬入 및 軍備 增強
  - 57.6.21. 75次 本會談에서 “유엔” 軍側에 의해
- 停戰委 共同監視小組의 機能 (정협 2 조 23 항)
  - 軍備增強의 共同調査 拒否
  - 67.4.8. 243次 本會談에서 共產側에 의해
- 軍事分界線 標識物 設置 機能
  - 破損된 標識物의 再設置 拒否
  - 73.3.7. 北傀側에 의해

## 現存 實質的 機能

- 休戰線의 維持
- 休戰線의 監視 (名分上의 機能)
- 軍事停戰委員會를 통한 軍事的 紛爭의 解決 努力과 對話

## 나. 軍事停戰委員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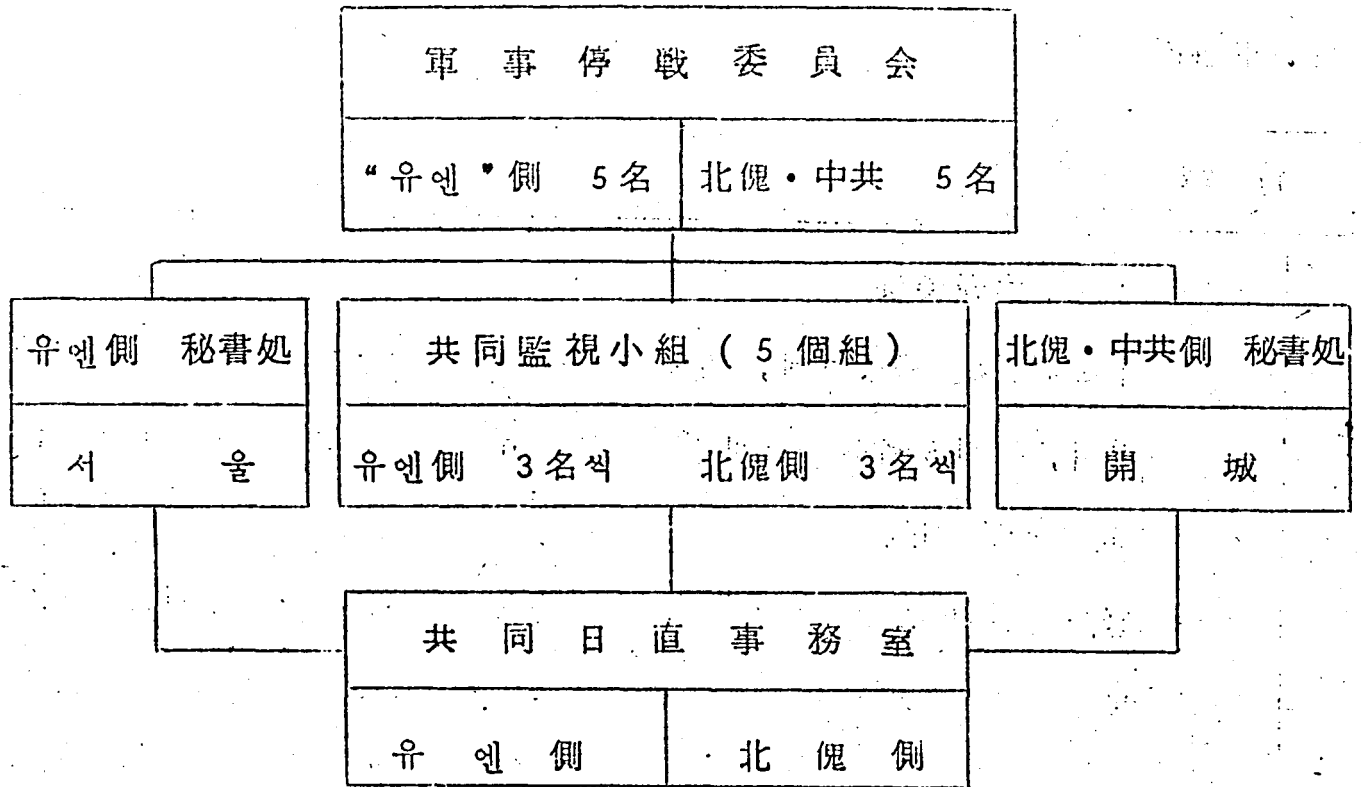
### 1) 構 成

#### ○ 軍停委 代表委員

- 10 名으로 構成하되, 그중 5 名은 "유엔" 軍司令官이 任命하며, 그외 5 名은 北傀人民軍 司令官과 中共支援軍司令官이 共同으로 任命
- 雙方 5 名中 3 名은 將級, 나머지 2 名은 少將, 准將, 大領 또는 그와 同級인 者

#### ○ 軍停委 補佐機關 (정협 2 條 26 項)

- 秘書處: 雙方的 行政的 事項 管掌
- 共同監視小組: 非武裝地帶內의 違反事件 調查, 標識建立 等 (67 年 北傀에 機能 中止後 8.18 事件때 처음으로 板門店 共同警備 區域의 分割警備標識 共同으로 設置)
- 共同日直事務室: 雙方間의 連絡, 板門店 訪問客 案内等



2) 職責과 權限

- 職 責
- 會談本部 ( 板門店 또는 非武装地帶內 ) 의 設置 運營
-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節次規定의 採択
- 非武装地帶와 한강하구에 관한 각 規定의 執行에 對한 監視
- 共同監視小組의 事業指導
- 協定違反事件의 協議 處理
- 中監委의 協定違反事件調查報告 및 其他報告의 雙方司令官에의 傳達
- 雙方司令官에의 通信傳達의 仲介役割
- 實務職員과 共同監視小組의 證明文書 및 휘장, 그리고 그 任務執行에 使用되는 車輛등의 識別標識의 발급 ( 정협 2 條 24 項, 25 項 )

○ 權 限

- 協定違反事件의 調査 (停協 2 条 27 項)
- 中監委에 要請하여 停協違反事件에 대한 特別監視와 視察 (停協 2 条, 28 項)
- 雙方司令官에 대한 協定違反事件의 報告 (停協 2 条 29 項)
- 雙方司令官에 대한 協定違反事件處理結果의 報告 (停協 2 条 30 項)

3) 會議의 種類 및 討議事項

種 類	開 催	構 成 및 討 議 事 項
本 會 談	雙方의 要 請에 의 하여	○ 雙方代表 各各 5 名 및 會談要員으로 構成 ○ 協定 2 条 10 項, 12 項, 13 項에 관한 違反事項 의 討議處理 等
秘書長會議	上 同	○ 雙方軍停委 秘書長으로 構成 ○ 주로 軍停委에 관한 行政的 事項의 討議 採択 等
共同日直 將校會議	日曜日을 제외한 每日 12 時	○ 雙方의 板門店駐在 日直將校 構成 ○ 雙方간의 文書連絡 및 전통수발 ○ 중감위의 의전사항 ○ 板門店 訪問客 案内 等
言語將校 會 議	每週 水 曜日	○ 本會談 및 其他會談에서 雙方간의 發言內容에 錯 誤가 없도록 文書交換 및 內容 補完
警備將校 會 議	雙方의 要 請에 의하여	○ 共同警備區域의 警備將校로 構成 ○ 共同警備區域內의 사소한 違反事件協議 處理

#### 4) 本 会談

- 会談의 開催
  - 어느 一方이 共同日直事務室을 經유, 24時間前에 会談開催를 要請
  - 会談要請을 받은 側은 會議內容을 事前 要請할 수도 있으며 行政的인 準備關係로 3~4日 遲延되어 開催되는 것이 通常關係임.
- 会談場所
  - 板門店 共同警備區域內의 会談場
- 会談의 構成 및 運營
  - 雙方代表 各各 5名과 会談要員
  - 議長制度는 없으며 觀禮上 会談을 要請한 側이 먼저 發言
  - 雙方的 合意 또는 一方的 退場으로 休會
- 会談의 議題
  - 停戰2條 10項, 12項, 13項의 違反事項
  - 停戰實施에 따른 全般的 事項의 協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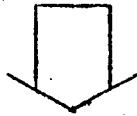


- 協定維持를 위한 對話의 広場으로서의 구실
- 協定違反事項에 대한 雙方間의 論争의 되풀이
- 北傀는 對南戰略의 一環으로서의 政治宣傳場으로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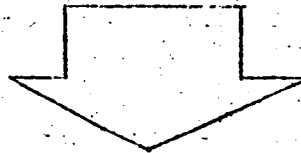
### 3. 軍停委會談과 北傀의 態度

#### 가. 北傀의 基本態度

- 人民革命戰略 展開
- 韓半島 武力赤化統一 實現



- 停戰委會談을 革命戰略遂行의 一部分으로 간주
- 停協(軍事問題)과 關係없는 政治問題 提起
- 長期的 鬭爭原則의 一還으로 간주
- 再南侵準備의 隱蔽場으로 간주
- 對美宣傳攻勢의 手段視



- 政治宣傳 攻勢場으로 利用
- 對南挑發의 隱蔽場으로 惡用
- 駐韓美軍撤收 策動場으로 活用



나. 本會談開催 狀況과 雙方의 停協違反事件 主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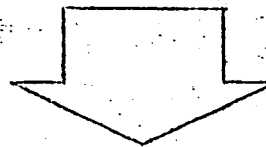
本會談開催 狀況				(1977.7.16 現在)
年 代	유엔側要請	共產側要請	계	會議席次
50	41 (36%)	72 (64%)	113	1 - 113
60	48 (26%)	136 (74%)	184	114 - 297
70	14 (16%)	74 (84%)	88	298 - 385
계	103 (27%)	284 (73%)	385	

雙方의 協定違反事件 主張					(1953 ~ 1976)			
	유엔側抗議				共產側抗議			
	地上	空中	海上	계	地上	空中	海上	계
抗議件數	38,572	106	86	38,764	178,865	951	821	180,637
是 認	2	-	-	2	16	79	3	98
否 認	6,515	91	57	6,663	172,360	872	818	174,050
無 反 應				32,099				
調 查 中								6,489

(박종국, 70年代以後 軍停委樣相과 展望, 統一院, 1977)



- 北傀는 計劃的인 挑發事件을 自행하고 유엔군側에 責任 轉嫁 畫策
  - 共產側 要請 : 282次 (73%)
  - 유엔군側 要請 : 103次 (27%)    總 385次中
  
- 停協違反에 대한 世界輿論 誤導 기도
  - 유엔군측이 主張한 北傀의 違反件數 : 38,764 件
  - 共產側이 主張한 유엔군측의 違反件數 : 180,637 件
  
- 北傀가 停協을 더 많이 違反하고 있음을 노정
  - 北傀側 : 38,764 件중 否認은 6,663 件인데 비해 無反應은 32,099 件임.
  - 유엔군측 : 180,637 件중 否認 174,050 件에 調査中 이 6,489 件임.



( 北傀의 態度 )

- 停戰委 運營에서 主導權 掌握 企圖
- 軍備增強, 對南挑發隱蔽 畫策
- 停協違反 및 緊張造成的 責任轉嫁

다. 軍停委 會談의 主要争点과 北傀의 主張

- 駐韓美軍 撤收  
(“停協”과는 관계없이 “韓·美防衛條約”에 의거하여 駐屯)
- 武器搬入등 軍備增強 禁止  
(北傀의 協定違反으로 57.6.21. 57次 本會談에서 유엔側이 停協 13項中목을 暫定廢棄 宣言)
- 北傀의 對南挑發

北傀의 主張

- 駐韓美軍撤收 및 核武器 철거
- 韓國에 新型武器導入 中止
- 各種 對南挑發行爲를 유엔군側 조작으로 생매
- 악랄한 對南中傷 誹謗
- 허황된 提案으로 政治宣傳攻勢에 狂奔

유엔군側의 反駁

- 北傀의 상투적인 駐韓美軍撤收主張은 軍停委와는 無關한 것임.
- 韓國新型武器導入은 停協 13項中目的 廢棄로 討議對象이 될 수 없음.
- 北傀의 各種 挑發行爲에 대한 証拠提示 및 非難
- 軍停委會談 惡用 및 政治的 提案 非難 反駁

## 4. 北傀의 对南挑發과 軍停委会談

가. 1970 年度

1) 概 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本格的 武力挑發을 展開 해온 北傀 만행의 해</li> <li>○ 악랄한 政治宣傳發言 極大化</li> </ul>	
2) 对南挑發	
軍停委 本會談에서 抗議된 事件 및 主要挑發 (間諜浸透 包含)	北傀의 对内外 主要 動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韓國農村住民集團 殺害目的으로 “우아독소”를 휴대침투 (3名 射殺) (1970.4.8)</li> <li>○ 西海 公海上 韓國海軍 수정 I-2号 나포사건 (放送船) (1970.6.5)</li> <li>○ 6.25 紀念行事를 앞두고 政府要因 暗殺企圖를 위해 国立墓地 현충문 폭탄장치사건 (1名射殺) (1970.6.2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駐中共北傀大使 현준극, 주은래 와 會談 (1970.2.17)</li> <li>○ 日本 航空会社所屬 (JAL) 旅客機 拉北 (日本 赤軍派에 의함) (1970.3.31)</li> <li>○ 박성철, 김중린, 한익수, 양형섭 中共訪問 (1970.6.24)</li> </ul>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 영흥도 間諜船 浸透事件<br/>(6名射殺) (1970.6.28)</li> <li>○ 한강하구 武装間諜 浸透<br/>(1名射殺) (1970.10.7)</li> <li>○ 板門店 北傀警備兵, 勞務者集團<br/>亂動事件 (70.10.9 및 12)</li> <li>○ 東海岸 武装間諜船 浸透事件<br/>(間諜船 擊沈, 1970.10.10)</li> <li>○ 철원, 운천 武装間諜 浸透事件<br/>(2名射殺, 70.10.14)</li> <li>○ 東部收線 武装間諜浸透 (陸軍服<br/>裝偽裝 1名射殺, 70.10.24)</li> <li>○ 인천울도 武装間諜 (1名生捕,<br/>1名射殺; 70.11.8)</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国共産党代表團 北傀訪問<br/>(1970.10.8)</li> <li>○ 中共-北傀間 經濟援助 協定<br/>調印 (1970.10.17)</li> <li>○ 北傀勞動党 5次党大会 開催<br/>(71-76, 6個年計劃 論議 및<br/>中央委員會 事業總和 報告,<br/>1970.11.2 - 11.13)</li> </ul> |
|--|--|

### 3) 停戰委會談

- 軍停委會談을 政治宣傳場化
- 對南挑發 行爲 失敗時 國聯側에 앞질러 會談開催 要請  
- 國聯側에 責任轉嫁, 平和攻勢 위장
- 軍停委機能 및 共同調查活動 마비 畫策
- 駐韓 美軍撤收主張에 狂奔하였음.  
- 總 13次에 걸친 會談은 대부분이 北傀의 DMZ  
銃擊行爲에 대한 것으로 28件이나 되었으며 10月  
한달간에 무려 13件이나 發生했음.

- 武装間諜의 浸透事件은 무려 이 한해에 36件이나 되었으며 이것 역시 10月 한달만에 10여건이나 發生하였음.
- 總 13회에 걸친 會談중 12회를 北傀가 앞질러 會談을 要請하였음은 國聯側에 責任을 轉嫁하자는 手法이었음.

↓  
分析 評 価

- 激增하는 北傀武力挑發行爲에 병행하여 보다 악랄한 政治 宣傳 發言으로 軍停委會談 惡用의 極大化
- 각종 事件真相 歪曲 造作으로 緊張造成責任을 國聯側에 轉嫁
- 南北聯邦制 및 南北軍事力 減縮이란 허울좋은 平和提案을 앞세워 수세적인 처지로부터 벗어나려 광분
  - 1969.12.11 : KAL기의 北傀間諜에 의한 拉北事件
  - 1970.10.9 - 12 : 板門店 共同警備區域內에서 北傀軍 警備兵 50~60名 및 労働者 40名이 삼, 망치, 농동 이 등을 들고 亂勤을 부린 일련의 事件
 이와 같은 事件들은 1970年度에 있어 주목을 쫓히는 것이었음.
- 特히 1970.6.24 박성철, 김중린, 한익수, 양형섭등의 中共 訪問 직전에 그들이挑發한 국립묘지 현충문 폭탄장치 事件은 다분히 戰略的인 意圖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리됨.
- 이 한해중 10월에 그들의挑發이 가장 酷했던 것은 1970.11.2 ~ 11.13에 열렸던 北傀労働党 5次党大会 開催를 앞두고 그들의 軍수산업육성 極大化를 위한 모종의 저의가 있었다고 判斷됨.

나. 1971 年度

1) 概 觀

- 1971.8.12 우리側이 제의하여 實現된 南北赤十字 豫備 會談은 5次에 걸친 派遣員 接觸과 13次에 걸친 豫備 會談을 거쳐 歷史的인 開催를 實現할 수 있었던 海였으나
- 軍停委會談 樣相은 前半期보다 오히려 더 악랄해 짐으로써 赤十字會談에 기대를 걸은 밖와는 달리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주어 큰 對照를 이룬 해

2) 對南挑發

軍停委本會談에서 抗議된 事件 및 主要挑發 (間諜浸透 包含)	北傀의 對內外 主要 動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西海 公海上에서 韓國漁船 "희영호" 37호, 38호에 기습, 攻擊發砲 (37호沈沒) (71.1.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傀勞動黨代表團 김일, 양형섭일행 蘇聯訪問 (71.3.2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DL 701号 北方 850미터 北傀 要塞障地에서 82 미터 박격포탄발사 (1971.3.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最高人民會議 第4期5次會議 開催 (허담외상, 平和統一 8個 方案提議) (71.4.12)</li> </ul>

- 한강하구 北方北傀 초소 기관총 200여발 사격 (71.4.30)
- 武装間諜船 西海海岸서 격침 (間諜 1名자수) (71.6.1)
- DMZ 南方 武装間諜 3名 浸透 (3名射殺) (71.6.30)
- MDL243号 北方 1050미터 北傀 초소 기관총 500여발 사격 (1971.7.9)
- 강화도에 武装間諜浸透 (2名射殺) (71.8.20)
- 中部戰線 間諜浸透 (3名射殺) (1971.8.20)
- 김포반도 武装間諜 浸透 (3名射殺) (71.9.17 ~ 18)
- 김포해상 武装間諜 浸透 (2名射殺) (71.9.13)
- 소흑산도 武装間諜浸透 (4名射殺) (71.10.30)
- 北傀 軍事代表團 (團長 오진우) 루마니아訪問 (71.4.17)
- 南北赤十字會議 韓國側 提議 수락 (71.8.14)
- 北傀 - 中共間 무상 군원협정締結 (71.9.6)
- 日本 東京都知事 "미노베" 一行, 北傀訪問 (71.10.27)
- 党 5期3次 전원회의 (偽裝 平和戰術로 轉換) (71.11.11 ~ 23)



### 3) 停戰委會談

- 北傀의 海上, 地上에서의 銃擊行爲는 總 35回  
(2件은 70年末 發生)
- 武裝間諜浸透事件은 總 18件중 11次에 結친 武裝間諜  
浸透行爲를 南北赤十字社 接觸以後 自행 (단, 軍停委 會談  
時 抗議한 事件만을 土台로 함)
- 國聯側이 DMZ의 平和的 利用提案을 提示한데 반해 北傀  
는 7.29 第319次 本會談을 통해 美軍撤收를 包含한  
所謂 “7個要求項目”을 提示 이에 대해 一方的으로 履  
行을 要求
  - 1. 美帝 即刻 撤收
  - 2. 日本 軍國主義者 韓半島 介入中止 措置
  - 3. 南韓內 新型武器 및 원자무기철거
  - 4. 武裝挑發行爲 中止
  - 5. DMZ內 戰鬪員, 自動火器 반출과 軍事施設 破壞
  - 6. 共同警備區域 (板門店) 범죄 策動 中止
  - 7. DMZ 中央分界線을 통한 南北韓 人民 自由通行 妨  
害말 것
- 이에 대한 國聯側 答弁은  
“北傀는 非現實的인 提案으로 時代錯誤的인 虛偽 宣傳  
에만 狂奔하고 있다”고 반박

分析評價

- DMZ에서의 銃擊事件이 頻繁히 發生하므로써 危機造成에 狂奔(3月8日에는 3次에 걸쳐 銃擊事件 惹起)
- 南北赤十字社 接觸이 行하여지고 있는 期間中에도 그들의 挑発이 끊임이 없었고 71年度 한해에 있어서의 北傀의 停戰協定 違反만 해도 2,483件이나 되어 1953年以後 最大의 數値를 나타내고 있음은 陰凶한 北傀의 戰略戰術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임.
- 國聯側은 이와같은 北傀의 挑發에도 不拘하고 DMZ 平和的 利用方案을 317次 本會議(71.6.12)에 提議하였음.
  1. 雙方合意된 地域으로 부터 軍事人員 撤去  
(共同監視小組가 地域內 軍事施設 調査後 軍停委에 報告)
  2. 軍停委 共同監視小組報告 內容討議  
(軍事施設을 破壞토록 措置하고 共同監視小組 確認調査 實施)
  3. 새로운 地域으로 점차 擴張
  4. 武裝人員 DMZ內 出入禁止  
(民事作業員의 農土復旧許容)  
(非武裝한 民政警察로서 地域內 民間人 統制)

( 軍事分界線 尊重 )

- 이에 대해 北傀側은 第 319 次 本會議 (71.7.29) 에서 오히려 北傀平和案 7 個項目을 들고 나왔음.
1. 駐韓美軍撤収
  2. 日本軍國主義者 韓國介入 禁止
  3. 停協 13 項 " ㄱ " 項의 一方的 廢棄 宣言以後 搬入한 各種 戰爭物資의 搬出
  4. 海上, 地上, 空中 挑發行爲 禁止
  5. DMZ 內 不法 設置된 障地 및 武器破壞
  6. 共同警備區域內 挑發行爲 禁止 및 軍停委와 그 從屬機 構機能의 麻痺禁止
  7. 南北韓 民間人의 中央分界線 橫斷通行 許容
- 따라서 國聯側이 主張하는 眞情한 意味에 있어서의 DMZ 平和的 利用에 대한 의도는 北傀側의 駐韓美軍撤収, 日本軍國主義者 韓國介入禁止等 現實性 없는 主張으로 挫折
- 北傀 허담外相의 所謂 平和統一 8 個方案 (77.4.12) 을 提議 하면서도 軍停委 本會談에서는
- 南朝鮮이 새戰爭準備에 邁하고 있다. (315 次)
  - 美帝는 DMZ 銃砲射擊과 繼續 間諜을 侵透시키고 있다. (316 次)
  - DMZ 內 緊張造成 行爲를 美帝가 하고 있다. (317 次) 등으로 國聯側을 헐뜯음.

- 持히 1970.11.2-13 北傀勞動党 5次 党大会時
  - 重 現代化
  - 全國土 要塞化
  - 全人民 武裝化
  - 全軍의 幹部化를 發表했음에도 不拘하고 허담外相의 平和統一方案 우우은 그들의 戰略의 幼稚性을 露呈시킨 좋은 본보기임.
- 또한 所謂 北傀 訪問客이란 者들의 (外國人) 反美 亂動示威 行爲를 助長하는 등 地域內 不安한 事態造成行爲가 故意的인 것임을 스스로 立証함.

다. 1972年度

### 1) 概 觀

- 南北赤十字 代表 一行이 平壤-서울을 公式 往來한해로서 軍停委는 이들에 대한 最大限의 支援
- 7月4日 南北共同聲明 發表
- 아프리카 左傾國들을 끌어들이 板門店 共同警備區域內에서 狂亂的 反美示威 및 亂動激化 造成
- 南北對話와는 別途로 軍停委 會談을 통한 北傀側의 政治 宣傳行爲는 더욱 高潮

2) 对南挑発

<p>車停委 本会谈에서 抗議된 事件 및 主要挑発 (間諜侵透 包含)</p>	<p>北傀의 对内外 主要動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大靑島 서쪽海上에서 北傀 艦艇이 우리側 漁船 1 隻을 擧沈시키고 5 隻을 拉北 (72.2.4)</li> <li>○ 非武装地帶內에 20 個의 要塞化 陣地構築과 總 54 키로에 達하는 철책선 構築 (329 차 72.3.23 本會議時)</li> <li>○ 板門店 訪問客動員 데모 恣行으로 緊張狀態로 몰아 넣음 (72.6.22, 331 次本會議時)</li> <li>○ 政府顛覆 企圖間諜團 事件 (7 개 망 23 名, 72.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성철 (當時 副首相) 서울 訪問 (72.5.29-6.1)</li> <li>○ 勞動党 第 5 期 4 次全員會議 (7.4 声明承認, 10 年制高, 中 義務教育實施) (72.7.4)</li> <li>○ 南北共同声明發表 (72.7.4)</li> <li>○ 最高人民會議 代議員選舉 (541 名選出, 72.12.12)</li> <li>○ 勞動党 第 5 次 全員會議 (72.10.23-26)</li> <li>○ 勞動党 第 5 期 6 次全員會議 (北傀憲法에 대하여 3 大 革命)(72.12.23)</li> <li>○ 最高人民會議 第 5 期 1 次 全員會議 開催 (社會主義 憲法에 대한 決議案 採択, 國家機關選舉, 72.12.25-28)</li> </ul>

### 3) 停戰委员会談

- 總8회에 걸친 會談이 全部 北傀側 要請에 의해 開催된 해였음.
- 7.4 南北共同聲明 發表後 9月7日 開催된 332次 本會議에서 北傀는 美帝는 裝備現代化로 緊張을 造成시키고 있다 느니 또는 美帝는 유엔看板을 버리고 撤収하라는 등의 發言을 하므로서 共同聲明 精神에 違背되는 行爲를 스스로 저질음.
- 8회 會談中 거의가 國聯側에 대한 誹謗 發言으로 始終하였고, 특히 會談때마다 美帝는 즉각 물러가라는 常套的인 言辭를 驅便함.
- 72年度에 雙方에서 단 한가지 合意한 것이 있는바 매 3시간마다 休會를 취하자는 것임 (72.3.23, 329次부터 適用)

### 分析評價

- 7.4 南北共同聲明 發表後 北傀는 過去 月 1 - 2회 軍停委會談을 召集해 왔던 종전 態度를 變更 만 2개월간 沈黙 - 期間中 北傀沈黙은 7.4 共同聲明 發表後 發言內容 修正 및 會談態度에 대해 平壤으로부터의 새로운 指命을 기다

리면서 冷却期를 갖고져했던 것으로 볼이 됨.

- 7.4 南北共同声明 發表後 처음으로 開催된 軍停委 332 次 本會議 (72.9.7) 席上에서 北傀 代表 한영옥은 對南 政治惡 宣傳 화살을 美軍側에 集中  
" 이제야말로 駐韓美軍은 쓸모없는 存在 " 이라느니 " 유엔의 看板을 떼고 즉각 撤収하라 " 는 宣傳 兇言을 거듭되 놀이 했으 며 그 後 3 個月만에 다시 열린 333 次 會談時에도 美軍 撤収를 앵무새모양 떠들었으나 70 年以後 가장 짧은 58 分만 에 休會됨 ( 北傀代表 김풍섭 새로이 登場 )
- 過去 5 - 6 時間 또 그이상 繼續하는 會談에 있어 忍耐力의 對決인듯 버티고 앉아있어야 했던 兩側代表가 이해에 서로 合意한 단 한가지는 매 3 시간마다 休會를 취하자는 內容이었 으며, 忍耐面에서도 우리에게 圧到當하고 있음을 示顯
- 南北共同声明을 發表하고 雙方代表가 平壤 - 서울을 公式 往 來한 해였으나 한편 停戰協定 違反件數는 무려 5,160 件이 라는 件數를 示顯했으며 總 8 회에 걸친 會談을 北傀側의 要 請에 의해 開催했음은 對內外的으로 그들의 好戰性을 隱蔽하 고 한편 偽裝平和統一을 내세우는 그들 특유의 戰略戰術이 었음.
- 또한 1958 年以後 軍停委會談 開催 回數가 가장 적은 한해 이기도 한 것은 前述한바와 같이 共同声明 發表 以後의 그들 나름대로의 戰略變遷을 試圖하기 위한 冷却期를 갖고자

한 것으로 풀이됨.

- 이 해에 主要挑発이 적었던 것은 南北共同聲明 發表에 따른 相互公式往來등 雰圍氣가 高潮되었던 까닭이었음은 勿論 그들 自体로서도 勞動黨 全員會議 開催, 代議員選舉, 最高人民會議 開催등으로 인한 것이라 추리됨.

라. 1973 年度

### 1) 概 觀

- 北傀의 會談開催 要請頻度 및 政治宣傳등 軍停委會談 惡用 行爲 점차 本格化
- 8.28 南北調節委 會談의 一方的 決裂以後 그 責任을 韓國 과 유엔軍側에 轉嫁
- 느닷없이 유엔軍側에 대해 西海 5 個島嶼群은 北傀 沿海에 位置하고 있으므로 向後 北傀에 航海 許可申請을 내라는 荒唐無稽한 発言으로 緊張을 造成했으나 國聯側의 強硬한 態度에 그 以上 論爭을 回避

### 2) 對南挑發

軍停委本會談에서抗議된事件및 主要挑發 (間諜侵透包含)	北傀의對內外 主要動向
○ 제주도 동쪽 우도에 武裝 間諜 出現 (73.3.4)	○ 北韓言語學者 김수경, 南北 韓글 共同研究提議 (73.1.14)



- 中部戰線 非武裝地帶內에서 作業中이던 我國에 不法射擊 ( 國軍 3 名被殺 ) ( 73.3.7 )
- 連川 서북방 非武裝地帶로 侵透한 武裝共匪 2 名 射殺 ( 73.4.7 )
- 北傀砲艦 1 隻이 백령도 동쪽 我側領海 侵犯을 비롯하여 11.28 3 隻 11.30 3 隻, 12.1 2 隻, 12.7-12 12 隻 侵犯 ( 73.11.19 )
- 軍停委 346 次 本會談에 서 北傀는 西海 5 個島嶼 ( 백령도, 大靑島, 小靑島, 延坪島, 우도 ) 一帶의 海域에 대한 領海權主張 ( 73.12.1 )
- 北傀 中央人民委員會 海外 駐在 9 個國 大使 更迭 ( 73.2.13 )
- 世界保健機構 ( WHO ) 加入 ( 73.5.17 )
- 南北調節委員會 北傀側 共同委員長 김영주 聲明發表 ( 一萬의 會談 決裂 ) ( 73.8.28 )
- 統一革命黨 목소리 放送 주파수 增設 ( 73.11.10 )

### 3) 停戰委會談

- 總 14 回 本會談 開催에 12 회가 北傀側 要請에 의한 것이었으며 第 344 次 (73.10.12) 本會議에서 北傀는 南北共同聲明 發表後 南北關係에 아무런 成果가 없었던 것은 內政干涉에 基因하며 美帝는 측각 물러가라고 對話 決裂의 責任을 全적으로 우리側에 轉嫁시키는 악랄한 發言을 함.
- 이 한해에 있어 北傀가 저지른 停戰協定 違反件數는 1953 年以來 가장 많은 5,415 件으로 記錄되나 단한건도 그들은 是認한바 없음.
- 1973 年度 軍停委會談을 통해 北傀의 韓國呼稱 方法과 그 用語의 變化를 檢討하면 南朝鮮軍隊 → 南朝鮮當局 → 美帝의 사주를 받는 南朝鮮軍隊 → 好戰分子 → 戰爭狂信者 → 남조선 00 군등 時日이 경과할 수록 각의 찬 發言으로 變貌
- 73.8.28 南北調節委會談의 一方的 決裂이후 그 責任을 우리側에 轉嫁시킴은 물론 對南惡宣傳은 7.4 共同聲明 이전의 원점으로 되돌아감

分 析 評 価

- 南北調節委 會談이 一方的으로 결 열되 기 전인 3月7日에 中部戰線에서 正常的 標識板(DML MARKER) 整備 補修作業中에 있는 韓國軍 將兵에 대한 北傀의 奇襲銃擊行爲 및 4月 17日 DMZ內 北傀武裝間諜侵透 재개는 不過 數個月前 公布된 7.4 共同聲明에 대한 正面挑戰行爲였으며, 특히 前 述한 3月7日에 저질러진 銃擊行爲는 사전에 公式通報했음 에도 不拘하고 發生했다는 점이 그 事件의 重大性을 말 해 주고 있음.
- 한편 國聯側은 4月 및 5月中 북한강 상류 DMZ 南方 限界線上에서 溺死體로 漂流중인 北韓어린 이 시체를 人道的 見地에서 引渡했음은 물론 10月12日 開催된 第344次 本會談席上에서 死亡한 中共代表 하거약의 冥福을 비는 一分間의 默念을 올린 아량을 誇示했음.
- 南北調節委 會談이 一方的으로 결 열된 以後(73.11.10) 統一革命黨 목소리 放送 주파수가 增設되었음은 注目을 要함.

마. 1974 年度

1) 概 観

- 西海公海上의 韓國漁船 "水原号" 奇襲 砲撃으로 緊張을 造成시킴.
- 11.15 07:35時 國隣側 巡察隊는 北傀가 構築한 땅굴을 發見, 이의 探索을 防害하는 300여발의 自動火器 射撃을 北傀가 敢行하므로서 韓, 美 將校 2名의 死亡 및 5名의 負傷 被害惹起
- 이에 後半期에는 駐韓美軍의 核武器 配置에 對한 狂亂的인 惡宣傳과 땅굴事件에 對해서는 356次 (74.11.26) 会谈時 長長 6時間에 걸쳐 舌戰

2) 對南挑發

軍停委 本会谈에서 抗議된 事件 및 主要挑發 (間諜浸透包含)	北傀의 對内外 主要 動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小甯島附近에 北傀艦艇 侵犯 (74.1.5)</li> <li>○ 北傀艦艇이 백령도 西쪽 48키로미터 公海上에서 我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傀最高人民會議 5期 3次會議에서 採択한 對美平和協商을 提議 (74.3.23)</li> <li>○ 軍事代表團 吳振宇一行 시리</li> </ul>

軍停委 本會談에서 抗議된 事件 및 主要挑発(間諜浸透包含)	北傀의 對内外 主要 動向
<p>漁船 水原号 32 号擧沈, 33 号 拉北</p> <p>○ 유엔 軍司令部參謀長 머피將 軍이 板門店 視察時 北傀兵 約 120 名이 集團亂動 ( 74.3.5 )</p> <p>○ 東海公海上에서 漁船 保護任 務를 띠고 哨戒中이던 我側 海洋警察隊所屬 863 号가 北 傀艦艇 3 隻에 依해 擧沈 ( 74.6.28 )</p>	<p>아 大統領 訪問 ( 74.6.24 )</p> <p>○ 北傀 國際原子力 機構加入 ( 74.9.16 )</p> <p>○ 北傀 UNESCO 會員國으로 加 入 ( 74.10.18 )</p> <p>○ 北傀 最高人民會議 5 期 4 次會議 開催 ( 74.11.27-30 )</p> <p>- 副主席 選出 ( 김동규 )</p> <p>- 社會主義 農村問題 提제</p> <p>○ 北傀 祖國平和統一委員會 “美國의 一韓國休戰線 核武器 配置說” 과 關聯 聲明發表 ( 74.12.16 )</p>

3) 停戰委會談

○ 이 해의 停協違反은 4,985 件이며 總 10 회에 걸친 本會 談中 9 件이 北傀要請에 依해 開催된바 北傀의 이와같은

頻繁한 會談要請은 그들의 各種 挑発을 正当化 乃至 그 責任을 轉嫁시키기 爲해 한결같이 앞질러 召集要請하고 있음이 年次別 分析에서 明白해 짐.

- 第351次 本會談(74.6.7)에서 北傀는 美國이 南北共同聲明 發表 以後 總32,300余件에 達하는 挑發行爲를 敢行했다고 생메를 씀.
- 特히 이해 8月15日 祖國光復 29週年 式場에서 北傀의 指 命을 받은 在日僑胞 文世光이 朴正熙大統領 狙擊을 企圖, 大 統領 令夫人 陸英修女史가 逝去했음은 우리들에게 큰 衝擊을 주었으며 全國民이 渾然一體가 되어 滅共에의 決意를 다시 한 번 다짐하는바가 되었음.

分析 評價

- 北傀는 터무니없는 생메, 即 國聯側이 南北共同聲明 發表以 後 32,300余件의 挑發行爲를 했다고 하는것 등은 3月23日 所謂 그들의 最高人民會議에서 採択한 對美平和 協商提議가 默殺됨에 따르는 兇惡的 動態라고도 풀이될 수 있음.
- 11.15, 07:35 國聯側 巡察隊는 MDL 0270 東南 1,000 미터 地點에 北傀가 構築한 터널을 發見했으며 이 땅굴 探索妨害

를 爲해 300 餘發의 自動火器 射擊을 하였고, 11.20 國聯側 軍事 停戰委 調査班 要員이 現地에 派遣 調査中 땅굴내 北傀가 陰密히 設置해 놓은 爆發物로 因해 將校 2 名 (美軍 1 名, 韓國軍 1 名) 이 殉職하고 5 名이 負傷한 不祥事가 發生했고 世界의 耳目이 이 事件에 銳意 注目되어 있음에도 不拘하고 몇번의 協議끝에 開催된 356 次 本會談 (74.11. 26) 에서 加소롭게도

武裝襲擊團을 浸透시켰다느니

偵察用 無人飛行機를 浸透시켜 偵探했다느니

- 核武器를 繼續 搬入하고 撤収를 拒否하고 있다느니 하고 엉뚱한 發言만을 하다가 "땅굴" 事件은 自己들과는 아무런 關聯도 없는일이며 우리側이 꾸민 反共謀略 策動이라고 늘어놓는等 궁지에 몰리면 恒常 對話의 核心을 판국으로 들리게 하고 엉뚱한 생떼를 쓰는 戰略을 구사해왔음

○ 北傀의 武力挑發行爲가 激化되어가고 있는中에도 北傀는 1974 年 中半期에 이르러 對美平和協商 云云하는 政治發言에 이어 第 352 次 本會談 (74.7.1) 에서는 美國이 停協署名 當事者로서 南韓 軍事統制權을 쥐고 있으므로 北傀가 美國과 直接 平和協商 締結을 要求하는것은 正當하고 合理的인 措置라는 妄言을 서슴치 않았음.

- 그들이 一方的으로 결렬시킨 南北調節委會談을 韓國政府와

美軍에 全的으로 轉嫁시키는 反面

- 美國의 反應이 어떻든간에 優先 對美平和協商을 提議했다는 事實만을 추켜세워 平和指向的인 反面위에 有利한 世界 輿論을 造成하고
- 이렇게 하므로써 韓國政府를 國際적으로 孤立시키는 宣傳的 效果를 노린 것으로 볼이할 수 있음.

○ 水原 32 号擊沈 33 号 拉北事件 發生後 國聯側은 2.16, 12:29 電通 메세지로 北傀 海上挑発行爲를 抗議하고 當該 事件討議를 爲해 2.20 開催할것을 要求한바 北傀側은 修正提議가 아닌 새로운 手法으로 自己들이 먼저 會議를 2.19 開催하고 자 엉뚱한 提議를 해왔으며 이러한 그들의 手法은 海上事件을 虛偽造作後 會談을 먼저 召集하여 마치 事件抗議를 北傀自身이 하는듯한 印象을 對內外的으로 誇示하고 國聯側보다 하루 앞당겨 會談開催를 要請하므로써

첫째 : 이번 會談은 國聯側이 아닌 北傀가 要請했다는 根拠를 남기고

둘째 : 軍停委 會談關係를 無視하는 故意的인 障害를 造成시켜 事件真相을 顛覆하는 演劇脚本 作成에 必要한 時間을 벌자는데에도 그 目的이 있었지 않았나等임.

그러나 結果적으로 北傀는 自身들의 虛荒된 主張을 認識하고 國聯側要求에 同意하고 말았음.



사. 1975 年度

1) 概 觀

- 對南政治 惡宣傳 再開
- 武力挑發 漸次 增加
- 악랄한 辱說로 對話분위기를 흐리게 했음은 물론 集團 毆打 行為等 緊張高潮 造成

2) 對南挑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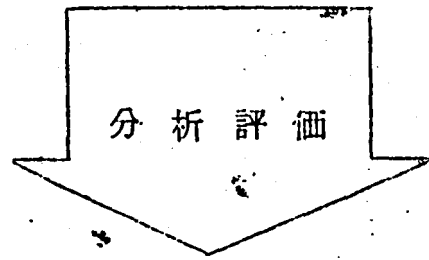
軍事停戰委 會談에서 抗議된 事件 및 主要挑發 (間諜浸透包含)	北傀의 對內外 主要 動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傀 武裝船舶出現, 韓國 陸海, 空軍 合同作戰으로 擊沈 (72.2.15)</li> <li>○ 西海 北傀武裝船舶 出現事件에 關聯하여 北傀는 11次에 걸쳐 韓國島嶼 上空 侵犯 (75.2.26-27)</li> <li>○ 北傀 땅굴 發見 (75.3)</li> <li>○ 北傀 MIG-21 機 2 台 侵犯 (백령도上空) (75.6.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리아軍事代表團 北傀訪問 (75.1.21)</li> <li>○ 勞動黨 5 期 10 次 全員會議 (75.2.11-17)</li> <li>○ 北傀 地方人民會議 代議員 選舉實施 (75.2.27)</li> <li>○ 最高人民會議 5 期 5 次會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予算 決算</li> <li>- 11 年制 義務教育</li> </ul> </li> <li>○ 리비아軍事代表團 北傀訪問</li> </ul>

軍事停戰委 會談에서 抗議된 事件 및 主要挑發( 間諜浸透包含 )	北傀의 對内外 主要 動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헨더슨少領에 對한 北傀의 集團毆打 亂動事件 恣行 ( 75.6.30 )</li> <li>○ 北傀 武裝兵 대성동 김제연 強制 拉致 ( 75.8.28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75.6.6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金日成 中共, 루마니아, 알제리아, 모리타니아, 불가리아 유고 訪問 ( 75.4.18-6.9 )</li> <li>○ 北傀 國家檢閱委員會 新設 ( 75.7.22 )</li> </ul>

### 3) 停戰委 會談

- 總11회 本會談 進行中 10회를 北傀의 要請에 依해 開催 했으나 每回 악랄한 政治宣傳과 誹謗 歪曲으로 一貫했음.
- 2.26 北傀 漁船이 어둠속에서 韓國 艦艇에 遇鎗的으로 衝突 沈沒後 2.26 부터 2.27 까지 2日間 11차례에 걸쳐 西海 國聯側 島嶼 上空을 侵犯하는 行爲를 恣行, 緊張을 極度로 惡化시켰음.
- 이 한해에 있어 緊張高調 造成의 事件으로 注目을 要하는 것은
  - 東西海 武裝 船舶 侵犯事件
  - 第2의 땅굴 發見

- 国聯側 警備部隊 副指揮官 헨더슨少領에 對한 北傀의 集團 毆打亂動
- 대성동 勞務者 김세연의 強制拉致事件等이고 對話에 臨하는 北傀態度도 兇惡的이었다고 볼 수 있음.



- 당국 共同現場調查 提案 및 強制拉致한 김세연에 對한 居住自由 選擇機會賦與 拒否等은 自身들의 失策을 是認하고 이를 陰蔽하려는 常套的 낡은 手法이었고
- 또한 国聯側 核武器 搬入에 對하여 狂氣에 가까울 정도로 繼續 떠들어대며 심지어 中監委까지 앞세워 그들 代表團에 書信을 發送하는等 신경질적인 態度로 기울어지는 것은 對內外的으로 不安狀態가 底辺에 깔려있다는 山 証拠인 것으로 볼이됨.
- 前述한 一連의 분위기로 보아 헨더슨少領에 對한 集團毆打亂動事件等도 그들의 초조함을 적나라하게 示顯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金日成은 4.18 부터 中共을 위시한 5 個國을 巡訪했는데 이에 앞서 361次(75.3.20) 본 會談을 北傀側이 要請해

놓고 무려 5 時間 05 分間을 繼續 核武器 導入非難과 땅굴을 韓國軍을 動員하여 파놓은 것이라고 떠들어 냄으로써 對內 外的 宣傳效果를 견우려는듯한 印象을 풍겼음.

○ 75.2.11부터 17까지 開催된 勞動黨第5期10次 全員會議 時 北傀는 所謂 人民軍隊5大方針을 提示한바

- 強靱한 革命精神
- 奇妙하고 靈活한 戰術
- 무쇠같은 體力
- 百發百中の 射擊術
- 強鉄같은 規律等이라고

떠들어낸것을 勘案하더라도 그들 内部가 沈滯된 狀態에 있 었음을 推理할 수 있음.

아. 1976 年度

### 1) 概 觀

- 8.18 도끼殺人 蠻行이 北傀에 依해 저질러진 後 그들의 對話 發言 變質
- 板門店 共同警備區域이 雙方 分割警備 概念으로 그 양상이 變更
- 328次(76.10.9)本 會議時 北傀는 停戰協定을 平和協定 으로 代置할것을 美國當局에 提議한다고 政治的問题를 舉論 했고 그後 北傀는 意識的으로 軍停委 會談을 回避

## 2) 对南挑發

軍停委 本會談에서 抗議된 事件 및 主要挑發 (間諜浸透 包含)	北傀의 对内外 主要 动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北傀武装間諜 3 名 浸透 ( 3 名 射殺 ) ( AK 47 2 挺의 鹵獲品 ( 76.6.19 )</li> <li>○ 共同管備区域内 車輛 巡察中 인 國聯側 警備兵에 20 餘名 의 北傀兵이 包圍 威脅亂動 ( 76.6.26 )</li> <li>○ 數十挺의 MG 및 數挺의 82 미리 무반동포射擊 ( 76.8.5 )</li> <li>○ 國聯側 警備員이 勞務者 50 名 을 勸員 미루나무 가지치기 作業中 40 餘名의 北傀兵이 現地 勸員도끼殺人行爲恣行 ( 美軍 將校 2 名死亡 ) ( 76.8.18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軍事停戰委員會 首席代表交替 김풍섭 - 한주경 ( 76.1.11 )</li> <li>○ 金日成 日本세카이 編輯局長 과 會見 ( 76.4.4 )</li> <li>○ 金日成 埃及軍事 代表團 과 會談 ( 76.5.22 )</li> <li>○ 北傀戰鬪態勢 命令下達 ( 8.18 事態로 全軍에게 ) ( 76.8.29 )</li> <li>○ 統革黨 7 週年 紀念聲明 發表 ( 76.8.29 )</li> <li>○ 社會安全部長 更迭 ( 이진수 - 최원익 ) ( 76.12.25 )</li> </ul>

## 3) 停戰委會談

- 總 13 회에 걸쳐 開催된 本會談中 國聯側 要請으로 開催된 會談이 3 回나되는것은 北傀의 8.18 도끼殺人蠻行을 糾彈 抗議하기 爲해 8 月한달에 연이어 要請 召集되었던것임.
- 8.18 도끼殺人蠻行以後 北傀의 對話 發言은 "美帝侵略者" 라는 틀에박힌 表現으로부터 "당신側" 또는 "美國當局" 으로 變質되고 惡宣傳의 發言을 韓國側에 集中시킴.

分析評價

- 惡辣한 政治宣傳과 事實의 歪曲, 誹謗만을 한결 같이 일삼던 北傀가 8.18 事件以後 되도록 美國의 비위에 거슬리는 言辭를 삼가하게 되었고
- 對美 惡宣傳을 韓國側에 集中시키는 한편 韓美 離間策에 全力을 기울인 해
- 그러나 8.18 事件으로 國際적으로 그들 威信이 最惡의 事態로 墜落했고 76年度 닥아오는 美大統領選舉와 카터行政府 樹立과 아울러 駐韓美軍撤収가 現實化될 可能性으로 미루어 보아 北傀는 76.10.9 제382차 本會談以後 意識적으로 軍停委會談을 回避해 오고 있음.
- 北傀의 戰略이 얼마나 淺薄한 次元인가 하는 것은 8.29 統革黨 7週年紀念聲明 發表에 있어 여전히 反美, 反獨裁, 救國抗戰을 頑強히 展開云云한 點임.  
即 8.18 事件以後 軍停委會談에서는 8.21 北傀軍最高司令官 이등으로 遺憾의 뜻을 表한 謝過文을 傳達했을뿐 아니라 '美帝侵略者' 라는 表現이 사라지고 '당신네' 들이니 '미국당국' 이니 하며 비위를 전드리지 않고저 하면서도 前述한 內容을 지켰었다 함은 二律背反的이며, 矛盾속에서 갈피를 못잡고 있는 形便 그대로인 것으로 풀이됨.

1) 概 觀

- 211日 동안 軍停委會談이 事實上 停止되었었음.  
(美軍撤收를 위요하여 國際情勢觀望態度)
- 美國의 비위를 可能한 건드리지 않으려는 態度 역연
- 所謂 經濟水域 및 軍事境界線에 對한 一方的 宣布와 그 들 經濟水域안에서의 韓國漁民의 漁撈作業 許容 云云으로 對內외의 指彈을 自招

2) 對 南 挑 發

軍停委 本會談에서 抗議된 事件 및 主要挑發 (間諜 浸透) 包含)	北傀의 對內外主要動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我軍 20 師團地域內 (江原, 鐵原郡) 北傀間諜 銃擊事件 (被害 1名戰死, 1名負傷) (77.5.3)</li> <li>○ 三千浦 海上間諜船 侵透 事件 (我側 漁船指導船 '통영호' 에 射擊가한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人民武力部 副部長 지병학 死亡 (77.2.28)</li> <li>○ 北傀軍事代表團 (團長 吳振宇) 파키스탄向發 (1.27)</li> <li>○ 이디오피아 軍事代表團 平壤訪問 (77.3.31)</li> <li>○ 金正一 板門店登場 (77.7.3)</li> </ul>

통영호船長 최장근(拉北)

(77.5.10)

### 3.) 停戰委會談

- 1977 年의 折半이 지나는 동안 軍停委 本會談은 3 차례만이 開催되었다.
- 可能한 北傀는 軍停委會談을 回避하는 態度로 推理됨.

分析評價

- 特異한 討議事項이 없었음에도 77.7.1 第 384 次 本會議를 北傀가 要請한 것은 每年 6 月을 '反美鬭爭의 달'로 發惡的인 惡宣傳을 일삼아왔던 그들로서는 一応 召集해놓고 政治宣傳을 늘어놓아야 속이 시원했던 모양인 것으로 풀이되며 그 會談場에서
  - '美帝侵略者' 라는 常套的인 對美惡宣傳 止揚
  - 最近 우리의 火力示範訓練 (77.6.23) 및 美海軍 艦船 訪問등을 非難



- 6.25 戰爭이 北侵이라는 歪曲宣傳 및 駐韓美軍 撤收 主張 등을 되풀이 하는 것으로 시종 일관했음.
- o 7.14 國聯側 헬기 (CH-47) 墜落事故로 인한 385次 本會議 (77.7.16) 에서 北傀는 비교적 詳細히 墜落事故 經緯를 言及, 이 事件으로 複雜한 事態가 惹起되기를 願치 않는다는 發言을 하면서 当日 15 : 00 秘書長會談 開催를 提議했으며 그들은 事前準備된 脚本에 의한 宣傳效果를 最大로 活用 過去 北傀態度와는 對照的으로 墜落된 헬기乘務員 死亡者 屍體와 더불어 生存者를 同時에 引繼함으로서 對美 好意的인 態度를 誇示하려는 術策을 엿볼 수 있었음.

## 5. 結論 및 對策

### 가. 軍停委員會와 北傀의 對南策動

#### 1) 休戰体制의 成立과 南北韓關係

- o 1953.7.27 韓國休戰協定이 締結됨으로써 韓半島의 休戰体制 成立
- o 韓國休戰協定은 韓半島에서의 敵對行爲와 一切의 武力行爲의 完全한 停止를 目的으로 하는 순전히 軍事的性質에 속함.

☆ 戦争再発防止의 重要條項

- 軍事分界線과 非武装地帶의 設置 (停協, 1, 4 項)
- 韓半島 境外로부터의 軍事人員과 軍事裝備의 搬入 등 禁止 (停協 13 項)
- 軍事停戰委員會의 設置運營 (停協 19, 20, 24 項)
- 中立國 監視委員團의 設置運營 (停協 36, 37, 41 項)
- 休戰協定自体가 國際法上戰爭을 終了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南北韓關係는 戰時狀態임.

2) 軍停委의 機能과 北傀의 對南策動

- 休戰協定の 實質的機能
  - 休戰線과 非武装地帶의 維持
  - 軍事停戰委를 통한 軍事紛爭의 解決努力
- 軍停委의 機能
  - 休戰協定違反事件의 協議處理
  - 休戰協定維持를 위한 對話의 廣場
- 北傀의 態度
  - 停戰委會談을 革命戰略遂行의 一部分으로 看做
  - 政治宣傳攻勢場으로 利用
  - 對南挑発의 隱蔽場으로 利用

○ 軍停委會談에서의 北傀의 對南策動

- 停戰委會談에서 主導權掌握 企圖

(77.9 現在 總 385 次中 283 回 (73 %) 開催  
要請)

- 休戰協定違反 및 緊張造成의 責任을 유엔軍側에  
轉嫁, 世界輿論誤導 畫策

(共產側이 主張한 유엔軍의 協定違反件數 180,363  
件)

- 軍事問題와 關係없는 政治問題 提起策動

(對南政治協商問題의 提起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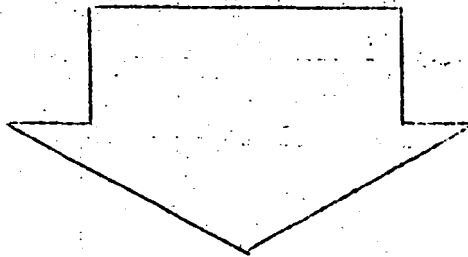
나. 軍停委會를 통한 北傀의 對南宣傳攻勢

1) 7.4 共同聲明 以前

○ 停協違反 主張

- 美帝와 南朝鮮 ○○側은 非武裝地帶內 各種 重, 自  
動武器搬入으로 그 地域을 戰鬪要塞化하고 있음.
- 武裝間諜을 통한 偵探挑發行爲를 敢行하고 있음.
- 板門店軍停委 本部區域, 共同警備區域의 緊張을 造成  
시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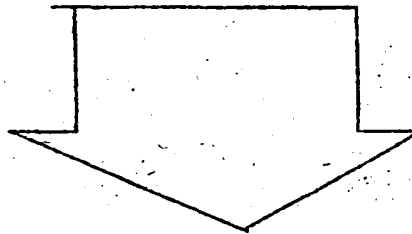
- S R機 高空偵探 및 海上侵犯 偵探行為를 繼續하고 있음.
- 停協을 違反新武器와 核武器의 搬入, 戰爭準備
- 政治的 虛偽惡宣傳
  - 美帝와 南朝鮮 ○○側은 南北赤十字社 會談을 妨害하고 있음.
  - 非常事態 宣布로서 北侵準備에 臨하고 있음.
  - 美帝는 6.25 戰爭을 誘發시킨 当事者임.
  - 駐韓美軍은 遲滯없이 撤收되어야 함.



- 停協違反 挑發行為를 相對方側에 責任轉嫁
- 駐韓美軍撤收 繼續主張

## 2) 7.4 共同声明以後

- 政治的宣傳 駐韓美軍에 集中
  - 駐韓美軍은 韓半島 平和的 統一의 障害要素임.
  - 美帝는 板門店 共同警備区域內 武器 搬入으로 南北赤十字 및 調節委 代表들에 威脅을 주고 있음..
  - 7.4 南北共同声明은 美帝 撤収를 要求하고 있음.
- 美國과의 直接接觸畫策
  - 美國과의 直接 協商締結要求
  - 「美帝」에서 「美國當局」으로 發言態度 轉換
  - 美國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는데 努力



- 駐韓美軍撤収 繼續 要求
- 美國과의 直接協商 企圖

## 다. 予想되는 北傀의 態度와 對備策

### 1) 北傀의 政治宣傳 攻勢

- 美 海, 空軍을 包含한 駐韓美軍의 完全撤收
- U.N.C의 即刻解体
- 韓國內 核武器撤去
- 美函의 韓函軍現代化 繼續 非難
- 休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代替하기 위한 對美单独 平和 協商提議의 受諾促求

### 2) 我側의 對備策

- 南北韓 相互不可侵協定이 締結될때까지 函聯側 軍停委의 存続 講究策마련
- 韓半島의 緊張解消를 위하여 北傀를 南北對話의 広場에 誘導할 수 있는 積極的인 外交活動의 展開
- 南北對話의 進展이 있을때 軍停委의 機能을 南北調節委員會의 軍事分科委員會로 점차 引受할 수 있는 事前對策의 樹立
- 誤判에 의한 北傀의 武力挑戔 行爲를 事前에 抑制하고 優勢한 立場에서 對北傀協商을 進行할 수 있는 經濟力과 函防力의 強化등

參 考 文 獻

- 軍事停戰會談 資料集 (1951.7 - 1974.9) ,  
中央情報部, 1975
- 軍事停戰委員會 本會議 經過分析,  
合同參謀本部, 1975
- 박종국, 70年代以後 軍事停戰委 樣相과 展望,  
國土統一院, 1977
- 김응택 '軍事停戰 協商과 赤十字會談의 比較研究',  
統一問題研究, 1973年 4月号, 嶺南大 統一問題研究所
- 韓國 休戰協定

78-3-1393

158

西紀 1978 年 4 月 日 100 部 發刊

發刊業體名：培 文 社 ㉖ - 0234 ~ 5  
㉗ - 0234

代 表 者：白 仁 奎

認 可 根 據：내이 2066-5505 (1970. 3. 24)

參 與 者

國 土 統 一 院

研究官 尹 環 泰